

아가사랑 후원회

편집실

아가사랑 후원회사업은 생명존중의식을 기본 취지로 정신지체아 예방 및 치료, 미술아/ 저체중아 치료, 불임에 관한 상담, 연구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. 후원금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한 산모와 가족, 그리고 새 생명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성합니다.

'99년 12월 처음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"메틸 말로닌산혈증" 환아인 김기묵 (남 2세, 울산 울주군) 어린이의 간이식 수술비로 1,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. 김기묵 어린이는 그 동안 특수분유를 먹으며 급성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간기능이 거의 손상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엄마의 간을 부분적으로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

2000년에는 선천성대사이상증 (Galacto-Sialidosis)을 앓고 있는 조현양 (남 13세, 전남 목포시 용당동) 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, 우리 나라 "메틸말로닌산혈증" 환자 중 가장 오래 생존하고 있는 최영진(남 5세, 강릉시 주문진읍)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. 최영진 어린이는 오랜 투병생활 끝

에 간과 신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또, "페닐케톤노증"을 늦게 발견하여 정신박약과 합병증이 심한 박혜정/박여울 자매 (여 19세/16세, 서울시 강동구 송파동) 에게도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2001년 2월 22일 실시된 아가사랑 후원회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가사랑 후원금 지급대상자를 심의, 뇌세포가 파괴되고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어 결국 식물인간이 되는 "부신백질 이영양증" 환아인 최혁진 (남 6세, 서울 성동구 금호동) 어린이를 후원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 내용은 KBS "병원 24시" 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, 협회에서는 최혁진 어린이의 골수이식 수술을 위해 아가사랑 후원금 1,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
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아가사랑 후원회를 통하여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6명의 어린이 뿐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귀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작은 정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아가사랑 후원회를 통해 많은 생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PPFK



김기묵



조현양



박혜정/박여울



최영진

아가사랑 후원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 아가사랑 후원회 회원 입금계좌(예금주: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) 조흥은행:362-01-071120/지로번호 7632659